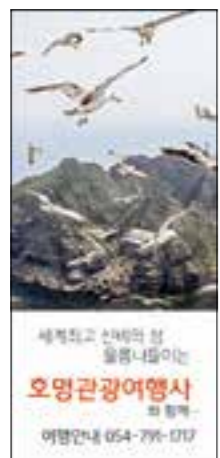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단체장 일정



권기창 안동시장은 17일 애명복지촌에서 열리는 민선 8기 공감과 소통, 복지시설편에 참석해 시민과 이야기를 나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17일 오후 대구읍성어울마당에서 열리는 '대구읍성어울마당 개소식'에 참석한다.

'특별재난지역' 영양군 입암면, 수해 복구 가속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전기료 등 12가지 간접적 혜택이 추가 지원

수마가 활취고 간 처참한 현장에 복구 작업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군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0일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 조사를 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 기준

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영양군 입암면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강수량 231mm, 일부지역은 10분간 42mm라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공공시설 78건, 사유시설 403건 등의 피해가 접수됐고,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정부의 선제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발맞춰 조속한 피해 복구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전기료 감면 등 12가지 간접적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비롯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간접적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

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직 피해 신고와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지자체를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한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 1년...매출 4조원 돌파!

전년 대비 매출액 5017억 증가 k-경북푸드 '비상' 전선 이상 무

경북도가 지역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2643개소를 일제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조 549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높은 생산 비용 등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고 K-경북푸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농업 대전환과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의 성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농식품 가공기업 육성, 안정적인 식품 원료 단지 조성 및 농업-기업 연계 등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유망 식품 발굴과 스마트 위생관리시스템 도입, 6차 산업 융복합 산업 가속화를 통한 명품화와 수출 활성화를 통한 외연 확대에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2023년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매출액은 4조 5498억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했다.

수출액은 2956억원으로 1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기능성 가공식품이 47%, 빵류 46.5%, 주류 43.4%로 크게 증가했다.

면류, 과자류, 음료류 등 식품 전반에 걸쳐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 100억 이상 기업은 83개소로 2020

년 대비 37개소가 증가해 2030년 까지 200개소를 달성할 전망이다.

국내 생산 원료 사용량은 317만톤으로 전체 원료 사용량 329만톤의 96.4%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도내 생산 원료 사용량은 161만톤으로 전체 사용량의 49%로 전년 대비 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올해 농식품 가공산업 지원액을 30억원에서 40억으로 상향해 잠재력 있는 기업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에 사업 용지를 마련한 김창수위스키즈류스(주), 나라셀라(주) 등 유력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식품기업의 국내·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소평몰 사이스 등 온라인 입점,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주요 유통업체 진출뿐만 아니라 수출 상담회, 해외 판촉전 등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가공산업 대전환을 통해 K-경북푸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세적 지원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이뤘다. 경북 농식품 기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조현일 경산시장, 취임 2주년 민생현장 체험

조현일 경산시장이 16일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빙속 현장체험을 했다. 이른 아침부터 서부2동 일대에서 환경관리원들과 함께 가로정소 및 클린하우스에 배출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작업 후에는 환경관리원들과 아침식사를 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며 책임을 다 하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덕분이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산 만들기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경산시 제공)

조현일 경산시장이 16일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빙속 현장체험을 했다. 이른 아침부터 서부2동 일대에서 환경관리원들과 함께 가로정소 및 클린하우스에 배출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작업 후에는 환경관리원들과 아침식사를 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며 책임을 다 하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덕분이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산 만들기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경산시 제공)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대변인제도 신설...

소통 상생 변화가 260만도민 행복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위한 것이 의회운영 중심이다

박성만(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변인제도 신설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기능을 강화한다.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시정방담에 오른 박의장은 "소통과 상생, 변화가 260만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의회운영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정책 소통을 위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지역별

의원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분석해 광역의회 역할을 다하는 도의회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한 뿌리인 만큼 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교류협력을 정례화 시킬 것"이라며 "국회,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등 의회관련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약 같은 상호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조직개편에 대해 "선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변인제도를 신설하고 정책 홍보활동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인 조직과 예산, 감사권한의 확보를 위해서도 다른 시·도의회와 협력해

계속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의회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나부터 앞장서서 구심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묶여있는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도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용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거야 폭주 어떻게 막나?

지금 거대야당 폭주 당 대표 어떻게 막나...원내대표 골병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16일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든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시정 동인정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거대 야당의 폭주를 당 대표가 어떻게 막겠느냐. 원내대표만 골병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당의 변화를 이끌 가능성은 없고, 야당을 상대로 투쟁

할 사람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당 대표가 된들 공천권이 없다"며 "지방선거에서 광역은 경선이어서 당 대표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기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4년 임기가 보장되어 당 대표가 장악할 능력이 안 된다"며 "원외가 당 대표가 되면 그제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2024

대구광역시
대통령 영사관
골프코르스
D-7

예천군의회
여천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
군민이 행복한 예천!
군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옥포읍번영회, 달성군노인복지관 무료급식 후원

달성군 옥포읍 번영회는 지난 15일 달성군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후원과 배식봉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이 참석해 식사를 했다. 150만 원 상당의 무료급식 후원은 옥포읍과 장맛비로 여름철 피로를 겪을 수 있는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 번영회 회원들의 정성어린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

하재덕 번영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軍威, 군부대 이전 軍 전문가와 군민 전격 토론

軍 정주환경 민·군상생 포럼 500여 명 참석해... 지역발전 방안 머리 맞대

군위군은 16일 '軍 정주환경 및 민·군상생'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포럼에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軍)과 지역사회 발전 연구회' 김진 회장 등 군 관련 초청인사, 공무원, 주민, 관련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관하는 지역 민간단체인 군위포럼이 주관했다. 올해 안으로 확정될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앞두고 대구 군부대 군위군 이전을 위하여 민·군 상생과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 참가한 군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대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군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

포럼 2부에서는 김진 회장(軍)과 지역사회 발전연구회)을 좌장을 맡아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남지현 경기연구원 센터장, 이도제 국방시설연구회 센터장, 고재군 군부대 이전 민간자문단 위원장, 장병익 대구시 군부대이전 군위군 추진위원장, 사공정향 군위포럼 대표 등 軍 전문가와 지역 대표 주민을 중심으로 민·軍의 공감대 형성 및 군부대 이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그 일환으로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이장회의, 삼국유사 청춘대학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방문해 대구 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내 대구 군부대 유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이번 포럼 행사 개최가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행사를 주관한 군위포럼의 사공정향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구도심 군부대를 군위군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 군민들이 군부대 이전을 왜 군위군

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부대 통합이전 시 군위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수는 "이번 軍 정주환경 민·군상생 포럼은 이번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 있어 군민과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쌍방향 정보 교류의 장"이라며 "군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와 대구시에 서 운영될 때까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끝까지 군민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대구 군부대 군위군 이전을 성공시키겠다"라고 했다.

대구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강화

폭염 시 야외 작업 등 활동 자제 온열질환 주의...물, 휴식 준수 당부

대구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에 대표적이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의료기관 21개소와 협력해, 응급실을 내원하는 온열질환자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계 기관 간 폭염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참여 의료기관이 1곳 늘어 감시체계가 더욱 꼼꼼하게 가동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온열질환 대처를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온열질환으로 59명이 피

해를 입었고, 매년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자도 증가 추세여서 올해도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5.20~7.14) 온열질환자는 전국 556명(중정사망자 3명포함)이며 대구시는 11명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재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여름 장마철로 인해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기온과 습도가 높아 일최고 체감온도가 33~35℃로 무더운 것으로 예상돼 온열질환자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온열질환자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시민들의 건강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다"며, "특히,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건강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북구 초복맞이 나눔행사 이어져...

검단동 주민자치위원회 고성동 새마을부녀회·협의회

초복이 반갑다. 일선 지자체는 어르신에게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로 매년 행사를 마련한다. 동구에서도 관내 어르신을 위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며 초복맞이 나눔행사 이어졌다.

당에 수박 20여통을 직접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며 안부를 살폈다.

이선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장마와 무더위로 지쳐있는 시기에 맛있는 수박으로 무더위를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더운 날씨를 이기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복 검단동장은 "초복을 맞이하여 검단동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수박 나눔 행사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동 새마을부녀회·협의회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북구 고성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도 초복날 관내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삼계탕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신신엔씨에서 닭 200여마리를 후원받아 진행됐다.

고성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원들은 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관내 경로당 4개소와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이정식 새마을협의회장은 "아침 일찍부터 삼계탕 나눔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준 새마을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름철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오수미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에 도리어 마음이 훈훈해졌다. 어르신들이 여름철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힘드시겠지만,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군위군의회, 하반기 첫 임시회 개최

군위군의회가 지난 15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제9대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에 관한 것이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의회 출범에 맞춰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집됐다.

최규종 의장은 "제9대 군위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후 첫 임시회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러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난 발생 예측 시 노약자와 취약계층의 야외 활동 자제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취약지역 및 위험 예상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위기임산부 체계적 지원

대구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가톨릭 푸름터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지정은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역상담기관에서는 경제적·심리적·신체

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가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원가정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등에 대해 안내한다.

달성군, 우수기관 및 우수기관장상 수상

2024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식품안전관리 운영' 우수상 선정



달성군이 지비나 12일 개최된 2024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기관장상을 수상했다고 밝

했다.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정부부처,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이나 정책의 성공사례를 선발하는 제도다.

달성군은 공공기관 최초 스마트 HACCP 인증 및 ISO 22000 인증으로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운영' 부문에 선정되어 우수기관 및 우수기관장상을 수상했다.

군은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에 따른 식품업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시스템인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 확산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8월 전국 시·군·기관 최초로 스마트 HACCP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군은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를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3년 11월 국제식품안전규격인 ISO 22000 인증도 취득했다.

우수한 시설과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2023년 11월 22일 'HACCP KOREA 2023'에서 HACCP 우수영입장으로 선정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기쁨'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9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일일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3



계명문화대학교, 기술사관 육성사업 선정

계명문화대학교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선정 분야는 '기술사관 육성사업'으로 직업계

고2년, 전문대학2년 등 4년간의 연계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계명문화대가 선정된 이번 기술사관 육성사

업에는 대구 조일고가 참여한다. 소방 관련 산업체 20곳이 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스마트소방환경기술사관사업단을 구성해 소방과 환경,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포항시, 혁신 기술 스타트업 육성... 돛 올렸다

SK 에코플랜트 기술 공모전 6개 스타트업 수상기업 선정

포항시가 지속가능한 K-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국내 대표 친환경·신에너지 기업인 SK에코플랜트가 '2024 Tech Open Collaboration' 기술 공모전을 공동 개최했다. 16일 서울 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공모전 수상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김형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 전우종 SK증권 대표이사, 권지훈 리뉴어스 대표이사, 최열수 창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이영

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신관우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Tech Open Collaboration)은 SK에코플랜트가 2021년부터 매년 주관·시행 중인 혁신기술 발굴 공모전이다. 시는 지난 4월 SK에코플랜트와의 '배터리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여러 지역의 창업혁신기관들과 함께 이번 공모전을 공동 주최하게 됐다. 공모전은 △배터리 △에너지 △친환경 △대기 오염 △해양 및 해상풍력 △AI/DT △친환경 소재 △스마트건설 등 6개 분야 수요 기술에 대해

진행됐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23개 사를 대상으로 1-2차 PT 평가를 통해 최종 6개의 스타트업이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기업에는 포항 소재 스타트업인 ㈜투엔과 엠버로드가 최종 선정되면서 배터리 등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에 우수한 R&D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포항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투엔(대표 김재훈)은 '중류 분리막을 이용한 폐배터리 폐수처리기술'로 최근 급성장하는 이차전지 폐수 관련 처리 및 용수 회수시장에 대한 선점과 확장성을 인정받았다. ㈜투엔은 22년간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에서

근무하며 관련 노하우를 쌓은 김재훈 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신소재 및 전자관련 분야 인력들이 합심해 설립한 3년차 스타트업으로 최근 이차전지 및 친환경 산업분야의 핵심기술 특허들을 획득하며 국내 대기업 및 해외 업체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속 성장하고 있다. ㈜엠버로드(대표 임인호)는 배터리 관련 사업장 대상 생산성 지표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모델링을 활용한 사업장 운영비용 가시화 및 분석기술'로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설립 3개월 만에 9억 원 투자 유치 및 중기부 기술창업프로그램(TIPS)에 선정됐으며, 현재

포스코, 기아 등 13개 대기업에 AI 솔루션을 적용 중이다. 시는 SK에코플랜트와 수상기업들의 공동 연구개발 지원과 향후 사업화, 투자유치까지 지원한다.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한다. 장상길 부시장은 "배터리 혁신기업과 관련 협력 기관의 역량을 결집, 기술-창업-성장-재투자로 이어지는 플랫폼을 마련,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지속가능한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대구교육청, 19일 교육금고 지정 입찰 공고...

객관적 공정한 경쟁... 4년간 교육재정 관리

대구교육청이 오는 19일 누리집과 대구시 공보에 2025년부터 4년간 운용할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한다. 16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2021년 1월부터 운용한 교육금고의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 절차를 통해 새로운 교육금고를 선정한다. 오는 25일 금고지정 신청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구교육청에서 제안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입찰 설명회를 갖고 8월 5일 제안서를 제출 받는다. 8월 2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3점)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교육기관 기여 및 협력사업(7점) 등 총 5개 평가항목(17개 세부항목)을 심사 평가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교육금고로 선정한다. 금고지정심의위는 △외부전문가 4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시의원 2명 △학교운영위원장 1명 △내부위원 4명 등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4년간 교육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할 교육금고가 선정돼야 한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금고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태웅 기자

경북도, 2024 노인 일자리 사업평가 '대상'

전국 최고 수준 노인일자리 수행 노인 일자리 개발 노인복지 증진



경북도가 '2024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도는 2023 '최우수상'에 이어 2024 '대상'에 선정, 전국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자체와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추진 실적과 우수수행기관 인센티브를 적용 후 이를 합산해 우수지자체와 우수수행기관을 선정한다. 2024년(2023년 실적) 평가 결과, 광역시도 부문에서는 경북도가 대상에 선정,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김천시와 청송군이 최우수상, 의성군이 우수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노인 일자리 시군 수행기관 평가에서도 포함 시니어클럽 등 20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우수수행기관으로 선정, 기관별 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총 1억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받는다. 도는 지난해 2044억원의 지원해 5만 5892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올해는 2688억원 지원으로 6만 4386명에게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의 실질적 소득 확대와 무위, 고독, 빈곤, 질병을 포함한 4(고)를 예방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했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경북도는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노력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개발해 노인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생활실천 공모전' ...

2024 건강생활실천 디자인·영상 공모전 총상금 1930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24년 건강생활실천 디자인·영상 공모전'을 연다. 공모대상은 청소년(중학생 이상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새달 28일 까지 공모전 누리집(www.kahp-contest.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은 '디자인'과 '영상' 부문으로 진행된다. 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의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주제로 하여 작품형식에 맞게 표현하면 된다. 디자인 부문은 문구 없이 의미 전달이 가능한

삽화(3264×2448픽셀 이상, 가로형) 형태로 AI, PSD, JPG, PNG 등 파일이어야 한다. 영상 부문은 숏폼(30초-1분 이내) 형식의 온라인 광고가 가능한 영상물로 mp4 등 실행 가능한 영상 파일로 제작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독창성 및 창의성,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청소년부 대상(교육부장관상), 일반부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비롯해 총 28개 작품을 선정한다.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관리협회(www.kahp.or.kr) 및 공모전 누리집(www.kahp-contes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공모전 운영사무국(02-6278-3139)으로 하면 된다. 김성용 기자

구미시, 국립대-사립대 연합 모델 인재 '쑥쑥'

구미-경산, 경북 동반성장 견인 미래 성장동력 마련

구미시는 16일 금오산호텔에서 열린 금오공대-영남대 공동 주관의 '글로벌대학 포럼 및 협약식'에서 두 대학의 글로벌대학 본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구미-경산의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에는 구미-경산의 상공회의소장, 참여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 30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은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협력체계를 강화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글로벌대학 30은 2026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벌) 30개소 육

성을 목표로 1개교당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 허브로 육성,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혁신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3년 11월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한다. 금오공대-영남대는 올 4월 최초의 국립대와 사립대 연합모델 제시, 글로벌대학으로 예비 지정됐다. 7월 말까지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벌대학 본지정 결과가 발표된다. 금오공대-영남대는 국-사립대 연합모델을 제시하고 독립·자율·포괄적 결정권이 부여된 강력한 개방·독립형 거버넌스를 구축, 연합대

학으로서 각 대학의 장점을 종합·극대화한다. 금오공대는 탈경계형 수요 기반 글로벌 대학 연합을 통한 교육혁신을 준비 중이다. 금오공대(반도체·방산)-영남대(AI·소프트웨어) 중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 대학의 역량을 결집해 더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금오공대의 글로벌대학 지정을 위해 금오공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관련부처에 글로벌대학 지정 지속적 요청한다. '금오공대-구미시-글로벌 혁신기업(K-star 200)'산학동맹 결연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반도체·이차전지·방산) 지정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지역대학의 육성·지원이 필요하다. 송명주 기자



뜨거운 여름, Again 90's 농구 대잔치!

상주시는 17~26일까지 10일간 실내체육관 신관과 구관에서 전국 25개 대학농구팀 1000여 명의 선수 및 지도자, 임원 등이 참가하는 '제40회 MBC배 전국대학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대학농구연맹, 상주시농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부 남자대학 12팀, 2부 남자대학 6팀, 여자대학부 7팀이 참가하여 조별리그와 결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MBC배 전국대학 농구대회는 선수와 임원 및 가족, 스카우터들이 대거 우리 시를 방문함으로써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경기가 유튜브(네이버, 카카오 등)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경기 중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한다.

김선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영천 건설

후반기 의장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방향 비전 제시



김선태<사진> 영천시의회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앞으로 2년간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먼저 "10만 영천시민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임기동안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8대 의원으로서 4년 및 제9대 전반기 2년 총 6년간의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사회 의 현안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을 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 영천시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인 인구증가대책과 축사악취방지 대책은 소관 특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전문성있게 추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소통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시민들과 동행하며 더 나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영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영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은하 기자



안동시, 2024 경북도 산불방지 평가 최우수상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홍보 민관협력 강화 산불 제로



안동시가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2024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수시책(협력도), 산불예방 및 홍보실적, 산불진화 대응 등 1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시는 산불조심기간 거리 곳곳마다 산불조심

홍보 깃발·현수막을 설치했다.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해 나무 나눠주기 행사 및 관광지 일대에서 산불 예방 계몽운동을 했다.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쳤다. 행복택시 운행 기사 32명을 명예 산불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오·백지 지역 산불 예방에 적극 활용, 새해 영농인 실용 교육과 병행한 산불 예방 교육 및 프레시 매니저를 통한 산불 조심 홍보활동 또한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추진했다.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했다. 송명주 기자

상주시, 상반기 재정집행 도내 최우수 시 선정

신속집행 목표액 대비 104% 집행 목표액 대비 124% 집행 초과 달성

상주시는 2024 상반기 재정집행 경상북도 평가결과 최우수시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상반기 신속집행 목

표액 4,086억원 중 4248억원을 집행, 10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액 1376억원 대비 1705억원을 집행 124%의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경호 기자

“가족과 함께하는 나만의 도시락 만들기~”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주제있는 진로체험기회

문경시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가족진로체험으로 도시락 만들기 프로그램을 청소년문화의집 요리공방에서 운영한다.

7월 가족체험은 6월 청소년문화의집 모니터링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2기 문경시청소년운영위원회는 1월 신규위원을 모집, 2월 청소년진로체험(진로직업, 바리스타), 3월 슈링클스 공예 체험부스 운영, 4월 청소년 진로체험(타로상담사), 5월 가족진로체험(테라리움, 디저트), 6월 무무인형 만들기 체험부스 운영으로 매달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도록 힘쓰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은 “가족체험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고, 주말에 가

족들과 할 수 있는 체험을 고민하던 중 도시락 만들기를 준비하게 됐다. 청소년들이 가족들과 함께 추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은 정기적으로 주제 있는 진로체험을 기획하고 있다. 청소년진로체험은 토요일진로체험, 가족진로체험이 월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지원사업으로 4명이상이 모이면 체험이 가능한 공모형 진로체험도 있다. 김동수 기자

예천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가속도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추진

예천군이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지난 1일부터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마을돌봄터 3개소도 추가로 운영한다.

군은 저출생 극복하고 교육명품 도시로 거

듭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 없으면 교육도 있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오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 2개소(성락어린이집, 우방센터 어린이집)를 24시간제 어린이집으로 시범 지정한다.

평일 18시부터 2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 출장이나 야근, 임원 등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에 생길 수 있는 보육 공백에 부모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대상은 도내 6개월부터 5세 이하 긴급보육

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며 이용료는 없다.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위해 신도시 내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는 등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예천군은 장난감도서관과 돌봄센터가 있는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를 예천읍에 개관하고, 신도시에 연령별 돌봄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하는 등 부족한 육아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대여뿐 아니라 '데굴 데굴 놀이꿈터' 사업 진행으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다른 가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건강한 가족 분위기 확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송명주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감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경주시, '친들벼' 채종단지 항공 병해충 방제

경주시가 지난 12~16일까지 외동읍과 평동 지역의 친들벼 채종단지 40ha에 진행한 항공 병해충 방제가 성황리 마무리 됐다. 방제는 내년 지역에 보급할 종자 300톤의

안정적인 종자생산을 위해 장마 후 발생할 수 있는 흑명나방, 먹노린재,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의 주요 병해충의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 방제에는 무인헬기와 드론이 투입됐다.

시는 우수하고 습도 높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깨끗한 포장 관리와 병해충 적기 방제 등을 위한 재배교육과 현장 지원을 3월 부터 추진해 왔다.



경주시, 2024 한국 최고 ESG 경영부문 대상 수상

ESG경영 모범도시 로드맵 설정 4월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포...

경주시가 '2024 한국의 최고 ESG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행사는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후원했다.

대상은 정치, 경제, 문화예술, 경영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시는 △ESG경영 모범도시 실천 로드맵 설정 △2050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 △경주형 에너지절약 인센티브제 시행 △탄소중립 실천 추진전략 구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먼저 ESG 경영 모범도시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경주형ESG 실행계획 및 지표를 발굴했다.

현재 환경경영(Environment)분야 56건, 사회적 책임(Social) 분야 59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분야 27건 등 총 142건의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올 2월부터는 학생, 주부,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자발적 실천유도로 탄소중립 시민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4월에는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환경경영 분야 중 지난해 전기·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144가구가 1315만원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주형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제도는 심사위원들의 큰 호평을 얻었다.

사회적 책임 분야 중 경주시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제15회 다산목민대상에 선정되면서 받은 1000만원 포상금을 주택화재로 부상을 입은 고려인 동포 모녀에게 전달한 기부금은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도출, 연도별·부문별 대응대책 발굴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토록 했다.

시는 단계별 지속가능경영(ESG) 컨설팅 추진으로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인식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

시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유치, 한국관광의 별 선정(대릉원 및 동궁과 월지), 경주로 ON 앱 출시, 스마트 에어돔 조성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ESG 가치가 전 세계적



주낙영 경주시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더플러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 확산되면서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했다"며 "오늘 수상을

계기로 시정 전 분야에 대해 ESG 범주 내 정책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안전·환경 등 전 분

야에 걸쳐 주요업무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미래세대들에게 수자원 소중함 일깨워

부산디지털고 학생·교직원 경주공공하수처리장 견학

고교생들이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찾아 수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시는 부산디지털고 학생과 교직원 23명이 지난 12일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장을 견학했다.

견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제공하고 하수 정화에 대한 여러 궁금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견학에 참여한 학생들은 맑은 물이 재탄생 되는 하수처리 생생체험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물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고현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멀리 부산에서 경주시 물사랑 견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물의 가치와 환경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시 물사랑"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시민은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054-760-7806)로 신청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도 AI가 나선다...

인공지능 전화 서비스 제공 8월부터 23곳 읍면동 확대

경주시가 사람과 대화 가능한 인공지능(AI) 전화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에 앞장선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구축 서비스의 일부다.

2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실무협의체(행안부-지자체-네이버)가 개발

검증하고 있는 모델을 시범 적용한다.

시는 네이버 케어콜 인공지능 기술을 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유선 상담 분야에 선제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분류한다.

분류된 대상자는 해당 지역 공무원이 추가 상담을 진행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시는 이달까지 안강읍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는 전체 23곳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안부 확인이 필요한 주거 취약, 독거 장·노년, 차매 등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 1~2회 안부를 확인하는 인공지능(AI) 안부 전화 서비스도 이달부터 한다.

인공지능(AI)이 가족처럼 돌봄 대상자와 네이버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건강 상태, 식사 여부 등의 안부를 확인한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 국립공원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경주시가 지난 12일 지방도 945호선(황용동)에서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경주시, 경주경찰서, 경주국립공원

사무소, 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사태 피해지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도 945호선 통행자 보호를 위한 대책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기적인 산사태 발생지 모니터링은 물론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 지방도 945호선 사전통제 등을 시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사방사업 건의, 사면 CCTV 설치 등의 대책 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유포한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A large graphic advertisement for Daegu Metropolitan City. It features the slogan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Happy citizens, proud Daegu) and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Overly happy city, I want to live in). The graphic shows stylized figures representing different groups: '도전하는 청년' (Challenging youth), '활기찬 노후' (Vibrant old age), '꿈을 키우는 아이' (Child growing dreams), and '행복한 가정' (Happy family). At the bottom, it says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We will create a city where citizens are happy with population policy tailored to me.) The Daegu Metropolitan City logo is in the bottom right corner.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7월 해양유산 선정

독도의용수비대 최초주둔지, 독도의 식수원, '독도 물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7월의 울릉도(독도) 해양유산으로 독도의용수비대 최초 주둔지이며, 독도의 식수원인 '독도 물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편지를 맡고 있는 ㈜인스(IFS, 대표 최지연)와 협업을 통해 2024년 4월부터 매달 '이달의 울릉도(독도) 해양유산'을 선정하여 해양과학을 바탕으로 한 울릉도(독도) 해양유산 홍보를 통하여 울릉도 및 부속섬 독도의 섬 가치와 해양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7월의 울릉도(독도) 해양유산으로 선정된 독도 물골은 독도 서도 북서쪽 연안의 길이 약 14m, 입구 폭 약 3.5m 규모의 자연 동굴로서, 물골 상류로부터 빗물이 흘러들어와 내부에 고여 독도의 식수원으로 활용되었다. 물골은 또한 독도의용수비대 최초 주둔지로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독도의 식수원으로 인식되어 온 독도 물골은 일본의 독도 점탈에 맞서 울릉도 주민들로 결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 동도로 주둔지 이전까지 최초 주둔지로 활용했다.

해방후~1980년대에는 독도주민 최충덕, 제주해녀 등에 의해 주거지 혹은 식수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독도에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등으로 물골 이용이 사실상 중단돼, 2007년, 2018년에는 물골 샘 수질 개선을 위한 정비 공사 수행되기도 했다.

2017년에는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가 물골에서 신종 원생생물을 발견해 국제저널에 발표하기도 했다.

물골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물골 상류에 내린 강우가 조면암질 내의 발달한 절리를 따라 이동하다가 물골 내부로 유입되는 구조이다.



유입되는 지하수 양은 강수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물골 지하수 평균 유입량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2008~2021년 7회 측정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2960리터 정도이다.

이것은 500ml 음료수병 5920개 분량이다. 유입량은 강수량이 많을 때 최대 하루 7020리터를 보였으며, 최소 하루 1120리터를 보였다.

1950~70년대 물골에서 물을 마셨던 제주해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물골의 물은 약간 짠맛을 띠고 있다고 한다.

실제 측정 결과, 염분 농도가 약 2psu(주변 바닷물은 32~34psu)이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해 물골로 흘러들어오는 도양에 바닷물이 묻어있거나, 물골 내부로

강한 파도에 의해 해수의 일부가 유입된 결과로 판단된다.

물골을 이용한 제주해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물골에 있는 동자석 모양의 산신에 제를 지내는 등 정성을 다했으며, 물골 물통에서는 사람 수가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물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독도에서 사람들이 발붙여 거주할 수 있는 데에는 물골의 역할이 크며, 말린 미역은 굴 안쪽으로 쌓아 놓았는데 그 굴은 안으로 갈수록 아주 넓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바위에서 나는 물이지만 짜서 처음에는 이 물에 설탕을 타서 먹기도 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을 했으며, 해녀들은 봄에는 미역과 우미, 여름에는 구살(성게), 겨울에는 전복을 했다.

또한 물골의 자갈밭에 가마니 몇 장을 깔고 얇은 야전용 군인 담요를 덮으면 여기저기에 튀어나온 돌을 누르는 돌을 가지런히 하느라고 잠을 설치기 일쑤였으며, 물골 내부에 자그마한 토담집이 2~3층으로 만들어지고 계단을 따라서 칸을 나누어 숙식을 했다.

독도의 대표적인 해양유산인 물골의 보전 및 관리에 위해서는 첫째, 물골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근대화유산으로 지정, 둘째 울릉도독도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로서 추가 등재, 셋째, 물골 수질 개선을 위한 취수지 원형 복원 및 순환 시스템 개선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8월의 울릉도(독도) 해양유산으로는 1954년 8월 10일 최초 점등하여 올해 점등 70주년을 맞이하는 '독도 등대'를 소개할 예정이다. 정윤환 기자



울진별채지 안전교육 실시

울진군은 지난 12일 왕피천 문화관에서 울진군 별채지 작업 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기술원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벌목·조제 작업 재해유발요인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벌목 준비 안전작업 방법, 전기톱 벌목작업 시 안전수칙, 보호구 착용법을 통해 사망사고를 예방한 사례 소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울진군의 산림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작업 근로자들의 벌목작업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작업 근로자 안전관리 및 산림재해예방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아울러 함께하는 마음으로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울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진군, 폭염피해 예방 대응

울진군은 긴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예견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7월부터 8월까지 무더위가 극심한 낮 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울진읍 등 6개 읍·면 시가지 도로에 살수차 9대를 운영해 주요 도로의 열섬현상을 완화 시킬 예정이다.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간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살수차 운영뿐만 아니라 폭염 TF팀을 구성해 무더위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 무더위쉼터 63개소, 야외무더위쉼터 140개소를 운영한다.

특히 군은 폭염취약 시간대에는 야외 영농작업을 자제하고, 공사장 근로자의 작업을 일시 중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SNS와 문자메시지,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최근 이상고온 등 기상이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적당한 휴식과 충분한 수분섭취로 건강하고 무탈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청도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회의

대책 점검과 부서별 추진사항 공유 사전 대비와 향후 대응계획 점검

청도군은 지난 15일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 부서장과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안전을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홍수해) 대비 추진 실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을 점검하고 부서별 추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황관리 △사전통제 △주민대피 등 단계별로 요구되는 각 부서의 역할에 대한 임무 점검과 대비 현황에 대한 발표와 논의로

진행됐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저수지, 빗물받이, 배수로 사전 점검 등 재해위험시설점검 및 재해복구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에 관한 상황별 사전 대비와 향후 대응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청도군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45개소, 급경사지 46개소, 소화천 시설 153개소, 재난 예·경보 시설(강우량기, CCTV, 마을방송장치 등)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했다.

또한 기상상황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 예찰 및 위험징후 발견 시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대피시키는 마을순찰대(이장,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1,093명으로 편성·운영하여 주민 대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재난 대응 시 매뉴얼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여은 기자

청도군, 세계문화체험교실 운영

청도군은 지난 15일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정착 프로그램 수탁기관인 영남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과 청도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세계문화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계문화체험교실은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정착 프로그램 일환이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어린이들과 음악, 놀이, 만들기 등을 함께하면서 다양한 세계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의 보육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될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청도 SNS홍보단 양성 △글로벌 관광가이드 △글로벌 사랑방 등 외국인들의 체류 편의도모 및 지역사회 융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장기적·유망 분야를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여은 기자

청송군, 청송 '백자의 숲' 관광거점지 조성

사업비 59억 확보, 2028년 12월 준공 목표 새로운 관광거점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청송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특화·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지원, 생활거점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청송군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청송백자를 통한 주왕산관광지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59억 원이다.

건축설계를 공모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송백자 전시·체험관 1동(630㎡), 백자조각공원(990㎡), 중앙광장(2,000㎡) 등 청송 '백자의 숲'을 구축해 청송백자를 관광 브랜드화해, 청송의 새로운 관광거점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관광지인 주왕산, 주산지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관광객들이 청송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청송백자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청송만의 독특한 문화·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동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500년 전통 청송 백자만의 차별화된 관광거점을 조성하게 되어 청송백자가 미래 500년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주왕산 관광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영덕 병곡면, 벼 병해충 예방 1차 드론 공동방제

16개 드론 방제팀 투입해 732ha 공동방제 1차 시행



영덕군 병곡면은 지난 15일부터 관내 25개 리 732ha 면적의 벼 재배 농지에 병해충 예방을 위한 1차 드론 공동방제를 시행한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서 약제를 살포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드론을 활용해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방제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방제 효과를 높이는 등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병곡면은 16개 드론 방제팀을 동시에 투입해 공동방제 효과를 높이고, 장마 이후 고온 다습해진 환경으로 인해 병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 적기에 추가 방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덕식 병곡면장은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한 드론 공동방제를 통해 벼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8월 초에 시행할 2차 방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고품질의 쌀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고령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교육

고령군은 보건소와 옥산보건진료소에서 어르신 등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교육은 의약품 오남용 취약계층의 올바른 의약품 안전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한약사회 소속 전문 약사가 직접 실시했다.

특히 교육 대상자 눈높이에 맞춰 어르신이 주로 복용하는 감기약, 혈압약 등의 올바른 복용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에 취약한 어르신 스스로 의약품 복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고령군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올바른 의약품 복용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약품 안전 사용 문화 정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여중 내고장 문화바로알기

영천시는 16일 성남여자중학교 재학생 109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현산 짚아이어, 출렁다리 등 관내 주요 명소에서 '청소년 내고장 문화바로알기 및 체험활동'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영천시청년연합회 주관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영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먼저 보현산에서 짚아이어를 체험하며 짜릿한 스릴과 함께 보현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했으며, 출렁다리로 이동해 주변 자연환경을 둘러보며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지역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문화 활동을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으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은 "영천에서 태어났지만, 고향 곳곳을 다닐 기회가 없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를 탐방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소감을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영주시, 철도·관광 이어 인구감소 극복 '박차'

한국철도공사 23개 지자체 협약 체결
관광객 유치위해 철도운임·연계상품

영주시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한 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영주시를 비롯한 23개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관광·여행상품 개발·운영 및 할인 등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기관들은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상품명 '다시 있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 여행'으로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철도운임 할인은 총 50%로,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 달에 철도운임 40%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다.

할인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지정된 열차에 이용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주요 관광지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QR 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하면 된다.

특히 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오픈해, 할인된 가격의 철도승차권과 숙박·렌터카 등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철도공사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철도 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광,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주시는 올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철도 연계 혜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12개 지역(영주,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단양, 제천, 영동, 옥천, 남원, 무주,

임실)의 인근 철도역을 이용하는 왕복열차 승차권 운임의 10%를 우선 할인한다.

또한 해당 열차를 이용 후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찾아가 실제 혜택을 방문하면 추후 40% 철도 운임 할인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는 지난해 KTX-이음 서울역 연장 개통에 따라 철도를 이용한 여행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발판 삼아 더 많은 관광객이 영주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봉화 생활개선회 경북도 우수연합회 선정

한국생활개선봉화군연합회는 지난 12일 2024년 경북도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에서 경북도 우수연합회로 선정돼 상금 100만 원과 상패를 받았다.

봉화군생활개선회는 과학영농실천과 생활자원 활용으로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단체로 10개 읍면 11개 단체 39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특히 직영 농산물가공사업장을 통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 손두부, 쌀식빵, 쌀카스테라, 등을 생산 판매해 연 4억 원 이상의 매출과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쌀 소비촉진 확산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조현미 회장은 "이번 우수연합회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봉화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조직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전성기 기자

영천시,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 모집

영천시는 오는 15일부터 '2024년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는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기업-영천시 3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 적립한다.

5년 공제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의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신청 자격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별 최대 3명까지, 총 30명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가 공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천시는 3년간 월 10만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을 위해 영천시는 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 홍보부터 가입 지원, 대상자 선정, 청약안내 및 계약 체결, 지원금 관리 등의 세부적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와 기업의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자격을 갖추게 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자보다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높아 기업 현장에서도 공제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성과분석이 되고 있다.

또한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www.yc.go.kr) 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경산시 삼동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053-603-3333)에 현장방문, 이메일, 팩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다. 최은하 기자



초록빛 힐링, 다시 활력 찾은 성주 성박숲

국가유산 보존과 지역민들의
안전위해 발빠르게 복구완료

성주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단기간에 폭발적인 강우량과 천연기념물인 성박숲이 침수되고 왕버들(43호) 도복했다.

한개마을 담당 봉곡동 지역 곳곳에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이천이 범람해 천연기념물인 수령 2백여년이 넘는 왕버들(43호)이 쓰러지고 산책로가 심하게 유실됐다.

또 토사와 쓰레기 및 퇴적물이 광장을 뒤덮고 개화한 앞문매문동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했다.

성주군은 신속하게 대응해 국가유산청과 경북담당자들이 바로 당일 현장 확인해 왕버들(43호) 복구 및 성박숲 정상화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했으며, 직원들의 모래쌓기 등 발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성박숲은 도시에 위치해 많은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지역의 대표 국가유산(천연기념물)으로 국가유산 보존 및 지역민들의 안전과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성주군은 여행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발

빠르게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복된 왕버들(43호)을 세우고 영양제 공급 등 나무를 치료하여 안정화시키고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실된 산책로를 재 정비 등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하고 지역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주말을 맞아 찾아온 단체 관광객들에게는 심을 제공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어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어 감사하다. 성박숲을 지역민과 함께 가꾸고 잘 지켜내 전국에서 으뜸가는 국가유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재훈 기자

의성군, 청년마을 만들기 '로컬러닝랩' 6기 참여자 모집

의성군은 오는 24일까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로컬러닝랩' 프로그램의 6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성군 청년마을 '나만의성'은 2022년부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발굴 프로젝트인 '로컬러닝랩'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6주간 운영하는 5기 프로그램에 이어 9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주간 운영하는 6기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16명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로컬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20대 대학생 및 청년으로, 오는 24일까지 서류 접수 후 7월 말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참여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사업 및 사업 상품 판매 전략 기획 △창업기를 온라인 판매 전략 기획 △의성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주 개발 △의성 시니어 클럽 연계, 홈가드닝 키트 상품 기획 등 4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민과의 교류 기회 제공, 숙소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팀 프로젝트 시제품 제작비 지원 △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도시청년을 대상으로 지역탐색, 일거려 실현,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지원하며 의성군을 포함한 전국 39개 청년마을이 운영 중이다. 박재성 기자

고령군, 대가야읍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개최

고령군은 지난 15일 군청 우물실에서 이남철 군수, 김충복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가야읍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를 가졌다.

도시재생행정협의회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있어 관련 부서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대가야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해 관련 설명, 부서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날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군의회에 보고해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공청회를 열어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하반기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행복한 여름, 시민과 함께하는 영천시의회

시민 중심의 정책과 소통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시민과 함께 영천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의원
박주학



의원
이감균



의원
하기태



의원
이영기



의원
이영우



의원
우애자



윤리특별위원장
김용문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
배수예



의회운영위원장
권기한



부의장
김종욱



의장
김선태

